

Good&Bye 이야기

「 Good&Bye 」라는 영화를 보고 「학습전이론」을 비판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의 특수성입니다.

이 학교교육의 특수성에 대해서 교재인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 있습니다.(P 62)

학교에서의 배움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다

- 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위 그 중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특수성은 그 특수성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당연한 일
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다

- 영화 『おくりびと』에서 납관회사 사장이 주인공에게 납관기술을 의도적으로 가르쳐 준적이 있던가요?
- 거기에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칠판이 존재하던가요?
- 그리고 교양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같은 교육과정이 존재하던가요?
- 그 납관이라는 기술을 익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그리고 책이 놓여 있는 책상 그리고 납관기술을 잘 정리해 놓은 교과서가 있던가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그런 어떤 면에서는 보통 우리가 배움 혹은 학습을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예컨대 가르치는 행위, 교과서, 교육과정, 칠판 등)이 그 영화에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주인공은 그 사장으로부터 납관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훌륭한 납관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이런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을 잘 살펴보면 배우는 것은 반드시 교과서, 교수자의 의도된 가르치는 행위, 칠판, 교육과정, 책상, 의자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배움 혹은 학습이 성립한다고 하는 학교라는 제도가 상당히 독특하고 특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수강생 A: 네 그런것 같습니다. 학교는 뭔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머리에 넣어주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 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 맞다 영화를 보면서 다음의 한 구절이 가장 나의 마음을 깊숙이 흔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고바야시는 이 납관장면을 보고 자신이 납관사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차갑게 식은 사람을 치장하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는 행위. 그것은 냉정하면서도 정확하고 동시에 따스한 애정이 넘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여 고인을 배웅한다고. 고요와 평온함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손놀림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나: 그렇군요. 나도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 근데 영화에서 이 장면과 대비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나나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수강생 B: 대개 웃겼던 장면인 것 같은데 사장이 납관 매뉴얼을 그대로 읽고 주인공인 고바야시가 시체역할을 하는 장면요... 결국 사장이 면도를 하는데 잘못해서 고바야시 얼굴에서 피가 나는....
- 나: 그 장면이 왜 수강생 A가 감동을 받았다는 장면과 대비된다고 생각하나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수강생 B: 그러니까 저번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납관행위에서는 사람을 대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 관계, 만남을 고려한다고 해야 할까요...그러니까 음.... 그 망자가 생전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염을 하기 직전에 망자의 사진을 바라보는 사장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 납관메뉴얼에는 염을 하기 전에 망자의 얼굴을 쳐다보라 라고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그 사장은 그 납관장면에서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상황과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자세가 결국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연결된 것 같기도 하구요.
- 그런데 납관메뉴얼을 만드는 장면은 정해진 매뉴얼 수순에 따라 작업을 하다 보니 사람과 상황이 안보이게 된 거고 그것이 결국은 주인공의 얼굴에 피를 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나: 영화를 아주 깊게 본 것 같군요. 내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 납관장면에서 사장이 망자에 대한 화장을 마칠 때 짬 보인 행동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즉 ‘부인께서 생전에 사용하신 립스틱이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었죠. 물론 그 사장이 염과 납관을 할 때 준비한 도구에는 분명 ‘립스틱’이 있었을 거고 납관메뉴얼에는 자신이 준비한 립스틱을 사용해서 망자의 화장을 마무리 짓는다고 나와 있을 것 같아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 상황에 적절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망자와 망자의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요...암튼 매뉴얼에서 익힌 지식을 그대로 다른 상황에 그 상황과의 대화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계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수강생 C: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요. 주인공의 친구 어머니...음 그 목욕탕 하는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주인공인 고바야시 다이고의 염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제 생각으로는 다이고는 납관회사사장으로부터 납관메뉴얼이나 납관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배운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친구 어머니인 목욕탕집 아주머니를 섬할 때 주인공인 고바야시 다이고는 납관사 사장이 몸으로 보여줬던 망자와 그 망자의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즉 망자가 평소에 늘 즐겨 매는 스카프를 매어주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물론 섬을 할 때 망자에게 스카프를 매어 주라고는 어느 나라의 납관메뉴얼에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영복 ‘강의’ 중에서

- 지(知)와 애(愛)는 함께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 애정 없는 타자와 관계없는 대상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진정한 의미의 지(知)라는 사실입니다.
- 엄청난 정보의 야적(野積)은 단지 인식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폄하하게 합니다.
-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팔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모든 것을 파는 사회이며, 팔리지 않는 것은 가차 없이 폐기되고 오로지 팔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회입니다. 상품가치와 자본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 이러한 체제에서 추구하는 지식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는 한 점의 인연도 없습니다(신영복, 2008).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나: 여러분 『おくりびと』 라는 영화를 깊게 그리고 제대로 음미하면서 봤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방금 들려준 생각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학습전이론의 비판적 고찰」 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수강생 D: 저번시간에 슈퍼마켓에서 커피를 구입할 때하고 똑같은 문제를 학교 수학시간에서 풀 때랑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 그걸 통해서 「학습전이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막연히 느낀 것 같았는데 이 「굿바이」라는 영화를 보고 친구들의 감상도 들어보고 교수님의 생각도 들어보니까 「학습전이론」의 문제점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To see without is to recognize within

- 나: 어떻게 명확하게 다가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있나요?
- 수강생 D: 음.....그러니까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는 어디까지 실제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말은 잘 못하겠지만.... 아 맞아요..... 「학습전이론」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 관계, 그리고 만남을 배제한 상태에서 성립하는 이론 같아요.
- 그런데 교수님 이 「학습전이론」을 비판하는 이론도 있긴 있는 건가요?
- 여기서 물음: 알면서 안받아들이는건지? 아님 답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 못받아들이는 건지?